

# 광주동부교육청, '학교폭력예방 권역별 협의체 협의회' 성료

지역 사회 차원 '학교폭력 예방 공동대응 방안' 모색  
전담경찰관-초·중·고 학생부장 간 네트워크 형성  
광주교육연수원 10개 분임실서 열려...50여 명 참여  
학교별 학교폭력 사안처리사례 공유·상호컨설팅 진행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지역사회 차원의 학교폭력예방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0 학교폭력예방 권역별 협의체 협의회'를 지난 24일 실시했다.

25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학교전담경찰관의 담당학교 변경으로 동부관내 권역별 협의체가 9개 권역에서 10개 권

역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동부교육지원청은 학교전담경찰관과 인근 초·중·고등학교 학생생활부장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각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전문 컨설팅 위원을 포함해 15인 내외로 이뤄졌다. '2020 학교폭력예방 권역별 협의체 협의회'는 광주교육연수원 10개 분

실에서 열렸으며, 150여 명이 참여했다.

협의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교별 학교폭력 사안 처리 사례를 공유했고, 학교폭력예방 상호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 위원 태봉초 김숙희 교장은 "학교폭력 피해경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언어·사이버 폭력 같은 정서적 폭력이 부각되고 있는 교육 현실을 반영해 이번 학교폭력예방 컨설팅을 실시했다"며 "최근 학교폭력이 학교 간·학교급 간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전담경찰관과 각 학교 학생생활부장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관계 회복을 통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정착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기자



## 전남교육청, 코로나 속 온·오프라인 수업나눔

교사·학생 원활한 소통 가능한 수업 설계 적극 권장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에도 중등교과교육연구회, 수업선도교사, 배움나눔중점학교 등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수업나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들어 전남역사교사연구회 유튜브 수업나눔을 시작으로 20개 교과 연구회 별로 특성을 살린 수업나눔을 갖고 있다. 지난 25일과 26일에도 전남체협수학연구회, 진로진학상담연구회, 전남물리교육연구회가 수업나눔을 가졌으며, 중등교과교육연구회는 오는 11월까지 총 50회의 수업나눔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중등수업선도교사 98명은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다양한 원격수업 툴(Tool)을 활용한 블렌디드수업과 학생들의 배움과 상호작용이 살아있는 수업나눔을 전개하고 있다. 수업선도교사 수업활동은 전남창의융합교육원 교수학습센터에 탑재돼 더 많은 교사들이 수업에 도움을 받고 있다.

전남교육청이 수업 나눔·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운영하는 배움나눔중점학교도 점차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남교육청

은 지난 2월 도내 전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목포중앙고, 화순중, 순천별량중, 순천효천고, 여수고 등 5개 학교를 배움나눔 중점학교로 선정했다. 그 중 하나인 여수고는 최근 세계와 우리의 환경을 주제로 국어, 수학, 영어가 융합하는 융합수업 나눔을 펼쳤다. 28일(월)에는 목포중앙고에서 방송콘텐츠 제작과 음악수업을 융합하는 수업나눔을 갖는다. 이 수업나눔은 '그렇게'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혼합하는 블렌디드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대면과 온라인 수업나눔을 병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수업, 콘텐츠중심수업, 과제수행형수업의 어느 수업을 진행하든지 학생과의 소통이 원활한 수업설계를 할 수 있도록 중·고·특수학교에 QR코드를 스캔해 자율연수가 가능한 리플릿을 보급하고, 블렌디드 수업 실시간 쌍방향 연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 순천대, 산학협력관 개관식 및 가족회사 발대식 개최

인적·물적 지원 인프라의 통합 운영 위해 154억원 투자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지난 25일 10시부터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순천시, 지역 산학연관 기관 및 가족회사, 대학 보직교수, 발전지원재단 관계자를 초청해 '산학협력관 개관식 및 가족회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은 산학협력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인프라의 통합 운영을 위해 154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 11월 2일에 기공식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30일에 준공하였다.

산학협력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 규모로, 다목적 강당 및 회의실, ICT 멀티학습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취업지원센터, 전

라남도 출연 투자기업, 애니메이션 기업 등 1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추후 화상회의 및 비대면 산학협력 상담을 위한 스마트회의실 등 비즈니스 라운지 등도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개관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순천시 임채영 부시장,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 가족회사 대표 등 참여 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최소화하여 진행하였으며, 축사와 가족회사 제도 소개 및 운영방안, 산학협력교육센터 운영계획 등 향후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중점 추진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전라남도 출연 투자기업, 순천시 출연연구기관, 지역거점 혁신기관, 입주기업 및 센터, 기술이전 기업, 교수창업 기업, 창업지원 기업 등 산학협력의 대표적인 운영 성과 중심으로 홍보관도 운영하였다.

이날 산학협력관 개관식과 함께 가족회사 발대식도 개최되었다. 순천대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기업 간 공감형 교육·연구 협력을 바

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는 '가족회사'제도를 통해 587개의 가족회사와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순천대학교 고영진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산학협력관 개관을 기점으로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 분야에서 더 많은 활동을 통해 지역 산업체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통한 고용 창출로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대학교는 1993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선정을 기점으로 산학협력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왔으며 2004년에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교과부, 2012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중기부, 2014년), 글로벌물류인력양성사업(국토부, 2015년) 등 여러 정부 지원사업 선정의 성과를 거두며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목포대, (주)코엔스텍시콘과 해상풍력 산학협력 MOU 체결

"상호간 강력한 시너지 효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립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는 ㈜코엔스텍시콘(대표 서상일)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분야에 대해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 산학공동연구와 해상풍력 전문 인력양성,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연구 등에 관한 산

학협력을 진행한다.

박민서 총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정부의 한 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코엔스텍시콘의 축적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학은 해상풍력 연구력 강화를, 코엔스텍시콘은 기업까지 항상 등 상호 산학협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서상일 ㈜코엔스텍시콘 대표이사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기반과 우수한 연구 경험을 가진 국립목포대학교와 부유체 기술을 보유하고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주)코엔스텍시콘이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해상풍력 분야에서 서로의 장점과 경험을 공유한다면 지역에 최적화된 협력모델로서 상호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목포=박정수기자

